

프랑스, 남아공에 25억 유로 금융 지원

□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, 남아공 공식 방문으로 경제협력 강화

○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. 2. 28~29일간 남아공을 방문하여 타보 음베키 대통령을 면담하고, 의회 연설 등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를 천명

○ 향후 5년간 25억 유로 금융지원 약속

- 프랑스는 남아공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·간접투자를 통해 앞으로 5년간 25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으며, 이를 통해 남아공의 약 2,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동 사업은 프랑스개발청(AFD: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)을 통해 지원 예정

- ① 他 자금과 함께 **혼합융자 또는 프로그램 지원형태**로 투자(2.5억 유로)
- ② 아프리카의 **중소기업에 대한**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**보증기금 설립**(2.5억 유로)
- ③ AFD가 **향후 5년간 민간분야에** 지원(20억 유로)

○ 이 외에 이번 공식방문에서 프랑스 알스톰社는 남아공 Mpumalanga지역의 Witbank에 4,75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(Bravo project) 건설사업으로 13억 6천만 유로의 계약을 체결

- 동 사는 이미 지난 11월 북부 Lompopo지역의 Medupi에 800메가와트

급 발전기 6대를 가동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로 남아공 국영전기공사인 Eskom과 14억 유로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○ 또한 남아공은 에너지 분야¹⁾에서 자국의 Aveng와 프랑스 Bouygues 및 EDF의 대형 건설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며, 2번째의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프랑스의 Areva와 미국의 Westinghouse과도 협의 중

□ 군사안보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천명

○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존 협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국가들과 협의하고, 프랑스 의회와 함께 궁극적으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을 수립할 것임을 표명

- 집단안보(collective security)개념²⁾으로 접근하여, 군사동맹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아프리카의 안보는 아프리카인들의 문제임을 강조

- 따라서 더 이상 아프리카의 “헌병역할”을 맡지 않고,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³⁾도 현지 분쟁이 해결되면 순차적으로 철수할 방침

※ 코트디브와르 주둔군도 3월 중에 기존 2,400명에서 1,800명으로 축소 예정

1) 최근 남아공에서는 개인수요의 증가로 에너지(전기) 공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산업용 전기를 할당하는 사태에 이르렀고, 마침내 1월 중 기업들은 평균 2주일간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. 따라서, 향후 에너지 분야 발전이 음베키 대통령의 정치적 도전이 되고 있음. 이에 대하여 음베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(2.8)을 통해 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투자, ② 2010년 월드컵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천명.

2) 집단안보(collective security)는 침략자가 있을 때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연맹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으로 그 침략자에 대하여 보다 큰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것

3) 현재 프랑스군은 코트디브와르(2,400명), 세네갈(1,100명), 가봉(900명), 지부티(2,900명), 차드(1,500명), 중앙아프리카(200명) 등에 주둔하고 있음.